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4년4월7일(제2144호)

정혜엘리사벳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4:32-35	제2독서	요한1서 5:1-6	복음	요한 20:19-31

평화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안에

인간(호모사피엔스)은 약20만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삶의 방식은 채집 생활이었는데 1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을 지배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채집 생활에서 농경사회가 되었지만, 농경 생활로 인해 인간은 더 폭력적으로 변모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 생활은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면 이동하면 되었지만, 농촌 마을은 습격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식량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폭력의 역사',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못난 세상을 돌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빌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20,20)라고 하시며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상처 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화를 빌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상처 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화를 빌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비록 칼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죽어갔지만, 평화는 무기와 힘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 이룩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손을 내밀어 못으로 구멍난 손바닥 안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창으로 구멍 난 옆구리 안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심오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차린 사도가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라는 뜻으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20,29)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고백을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 결코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변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욕심부리고, 힘의 논리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스스로 만든 오해의 늪에 빠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 만이라도 예수님의 평화를 찾고, 누리고, 유지하고 나아가 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매일 외쳐야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액자 하나씩 만들어 매일 한 번씩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4월9일(화)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739.00 $ 2,710.00
4월10일(수)	부활 제2주간 수요일	오전8시00분	자 선 비 성소후원	$ 75.00 $ 75.00
4월11일(목)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성 물 방	$ 45.00
4월12일(금)	부활 제2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도네이션 성삼일봉헌	$ 1,273.00 $ 2.214.00
4월13일(토)	부활 제2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8,131.00
4월14일(주일)	**부활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3명 성인:332명
교무금 봉헌자	박문교(4-6)김두황(4-5)김경숙.신영후.원영일.조기은.임상일.지영욱(3-4)유창언(1-4)지동순(1-2)김운태.이경희.김이진(3)지종원.안강순(4)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하느님의 자비주일

교회는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요청하고,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자비의 사도'라 불리는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1905~1938) 수녀님은1925년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해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선종하기까지 주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많은 환시와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날 '하느님 자비' 상본으로 널리 알려진 성화도 성녀가 체험한 강렬한 환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환시에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 자신의 성심 근처를 움켜쥐고, 다른 손은 강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에서는 붉은색과 흰색 빛이 나오는데, 두 빛줄기는 창에 찔린 성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러한 자신의 성심에 대한 공경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맡겼고, 이를 이행하면 영혼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신심의 이름이 '하느님 자비'입니다.

성녀는 일기에서 "하느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전파했습니다.

<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성경에서 '자비'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느님 혹은 예수님께 쓰일 때는 '깊은 동정의 마음, 상대를 도와주는 사랑,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갖는 사랑이나 열망'의 뜻으로 쓰입니다. 때로는 '관대한 용서'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는 경우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구원 은총의 신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탈출기 34,6)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베푸시는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이사 54,8)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예레 31,3)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루카 1,54-55)라는 구절을 통해서는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은 고생하는 사람을 쉬게 하시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고 하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일화에서는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마태 15,32)고 하시며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는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역설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는 말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성녀의 메시지는 2000년의 마지막이자 3000년을 향한 다리와 영원히 연결된다. 메시지는 파스카 복음을 더욱 강렬하게 되새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주도록 한다"면서 시대를 초월한 하느님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이주연, 박민규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건강회복	이재덕 스테파노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생	김정필 라파엘 빠른 건강 회복	김명희 수산나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김미해 세레나, 김진영 마르타	아빌라데레사회
연	이진숙 율리아나 영혼	사회복지부	생	윤영호 마티아 가정, 표지수 마리아 가정	표정호 다니엘 가정
연	이진숙 율리아나 영혼	9구역	생	이은로 토마스 아퀴나스 영육건강	사회복지부
연	노월수 영혼	오영자 리디아	생	(세례)김이진 스텔라, 김리나 베로니카	10구역
연	한오임 소피아,정황자 세실리아 영혼	이나숙 데레사	생	(세례) 김이진 스텔라 영육건강	피효진 아그리피나
			생	김귀태 안셀모 영육건강	정의의모후 Pr.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성소주일(4/21) 특강
일시: 7일(주일) 오전 9시(영어),오전11시(한국어)
강사: 마리 조세핀 수녀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14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전례부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3. 4월 구역미사 (2구역)
일시: 12일(금) 오후7시
장소: 윤재경 알베드또. 윤은실 비비안나 (자택)

4. 4월 구역모임
1-1구역: 12일(금) 오후6시반 안성수 예로니모(댁)
1-2구역: 13일(토) 오후6시 유규석 바오로(댁)
5구역: 28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구역: 13일(토) 오후5시 임정남 실비아(댁)
7구역: 19일(금) 저녁미사후 친교실
8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5. 구역장 교육 및 피정
일시: 13일(토) 오후12시~ 성당 친교실
구역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월 구역장모임은 교육/피정으로 대신합니다.

6. 단체활동
사회복지부: 7(주일) 오전8시반 홈리스봉사
성 모 회:14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7. 사순저금통 봉헌 바랍니다.
사순시기동안 단식.금육.희생의 몫을 담은
사순저금통을 아직 봉헌하지 않은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8. Yard Sale (5월11일,토), **도네이션 받습니다.**
기간: 14일(주일)부터 5월5일(주일) 까지
매주일: 오전 10-10:50분, 오후 1-2시
물품하차: 주방앞 주차장 이용하시고
도움 필요시 사목회에 요청하세요
물품접수: 친교실
문의/접수: 김도철 베드로 사목회장
양경민 안드레아 총무부장

9. 울뜨레야 야외 모임
일시: 20일(토) 오후2시 Valensin Winery
많은 꾸르실리스따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10. 본당 꾸리아
일시: 21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쁘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11. 사랑의 급식 (주관: 5구역)
일시: 28일(주일) 모든 미사후 친교실
도네이션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12. 감사합니다
미사예물: 본당 신부님 ($940)
감사헌금(부활): 김두황 라파엘($200)
장애익 모니카($100) 박춘자 마리아($100)
제대꽃(부활): 익명($100)

<< 주일학교 >>

청년부 주관 College Career 특강
일시: 7일(주일) 오전10시 엘리사벳방
대상: 중고등학생 (6~11학년)

주일학교 피정 캠프 (장소:성당)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기간: 20일(토) 오후2시~ 21일(주일) 오전9시
대상: 주일학교 학생 전체 및 학부모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화답송

전례봉사	하느님자비주일 (4/7)	부활 제3주일 (4/14)	부활 제4주일 (4/21)	부활 제5주일 (4/28)
미사해설	박문교 / 한삼	오민정 / 김진영	김선식 / 이주연	김선식 / 이주연
복 사	지마리 황건영 권오승 송돈희	정우영 곽아인 김규철 곽유경	오은수 정준영 김병수 장현철	허준희 김태빈 윤지현 박지은
헌금위원	샛별Pr.	천상의모후Pr.	샛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vons Chicken OVEN & FRIED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보스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융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p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